교육부

장애인 진로멘토단 장애학생과 함께 빛나는 꿈을 그리다

프로그램 내용

다양한 직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37명의 장애인 진로멘토단 구성,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통해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 제공

운영 기간

2022년 5월 17일~11월 25일

신청 대상

중·고·전공과 특수학교(급)
재학중인 장애학생

신청방법

단위학교별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누리집 통해 신청
➡ http://mentoring.career.go.kr
※ 멘토별 **수업 당일 2시간 전**까지 신청

행복교육 2022년 07월
특별기획 - 대한민국 교육자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육부

07 vol.480
2022 JULY

행복한 교육

02 꿈이 영그는 현장
광운인공지능고등하교
최초의 인공지능고, AI 융합인재 키워낸다!

42 교육웹툰
교육기관 폰트 이용하기

46 진로직업인
배익천 아동문학가
동시동화나무의숲 가꾸는 동화작가

56 일상의 쉼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떠나는
도보 답사 여행

교육부

행복한 교육

07

vol.480 2022 JULY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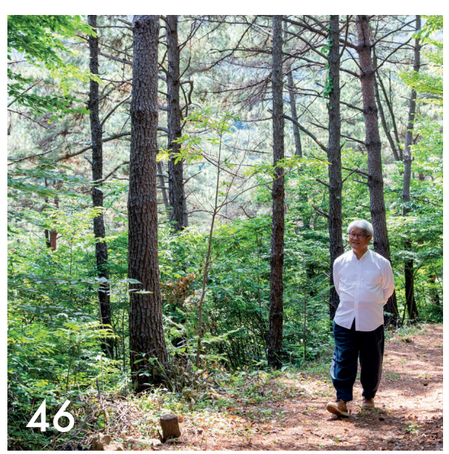
광운전자공업고가 올해 광운인공지능고(교장 이상종)로 교명을 바꾸면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고로 재도약한다. 학교는 인공지능 컴퓨팅과, 인공지능 전기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를 신설하고 인공지능교육체험관도 문을 열었다. 체험관에는 AR/VR 설계 및 체험존, 드론 체험존, 사물인터넷 체험존, 스마트팜, 블록로봇 등 인공지능 수업과 체험을 위한 첨단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발행일 2022년 7월 1일
발행처 교육부
편집인 대변인 최성부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조재익
사무관 이인숙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객원) 김혜진, 서지영, 이경화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6

10


46

특별기획

대한민국 교육자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5
시도교육감 향후 4년간의 비전과 주요 공약

32
교육감 선거 결과로 본 지방교육자치의 과제

36
민·관·학이 함께하는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56

02 **꿈이 영그는 현장**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최초의 인공지능고, AI 융합인재 키워낸다!

06 **네 꿈을 펼쳐라**
대구 산격중학교 뮤지컬동아리 '반창고'
학교폭력 예방은 마음 치유가 먼저

10 **에듀피플**
하태욱 경기 안성 신나는학교 교장
실패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속에서 아이들은 한 걸음 '더 성장'

39 **정책을 말하다**
건강체력 증진! 모두가 힘 모은다

42 **교육웹툰**
교육기관 폰트 이용하기

44 **이달의 교육뉴스**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 전략 발표 外

46 **진로직업인**
배익천 아동문학가
동시동화나무의숲 가꾸는 동화작가

50 **체험! 진로현장**
아동문학으로 아이들의 예쁜 마음과 만나요

52 **교육포커스**
교육자치와 교육과정의 지역화

56 **일상의 쉼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떠나는 도보 답사 여행

60 **교실혁명**
환경을 사랑하는 저.탄.구.지(저탄소로 구하자 지구를!)

63 **명예기자 리포트**
"세계문화유산 공산성을 메타버스로 만나보세요"

64 **독자마당**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최초의 인공지능고, AI 융합인재 키워낸다!

개교 이후 57년간 명실상부하게 전자·전기·통신 교육을 주도해왔던 광운전자공업고가 올해 광운인공지능고(교장 이상종)로 교명을 바꾸면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최초의 인공지능고로 재도약에 나섰다. 올해 새롭게 인공지능 컴퓨팅과, 인공지능 전기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를 신설하고, 복합체험공간인 인공지능교육체험관 개관식까지 마쳤다. 1호 인공지능고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과 학교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글 _ 편집실

학령인구 감소로 수년간 신입생 미달… 성장통 있더라도 학교 개혁으로 승부수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특화된 커리큘럼과 신뢰받는 도제프로그램으로 명성을 떨치던 광운전자공업고. 올해 2월에 열렸던 제70회 졸업식까지 포함하면 누적 졸업생만 4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전통 있는 직업계고로 손꼽힌다. 하지만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 증가로 신입생 모집에 대한 학교의 부담은 날로 가중되어 왔다.

학교는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인공지능(AI) 고등학교' 사업에 지원했고, 사활을 걸고 준비한 끝에 2021년 6월 '스마트시티' 분야에 선정되면서 침체됐던 위기를 벗어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

이상종 교장은 인공지능고를 준비하면서 변화를 꾀하던 2년여간 학교 전체가 성장통을 앓았다고 말한다.

"직업계고가 이대로는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은 모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인공지능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문회 기수별 대표모임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득하고, 이사회에 가서 수차례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교직원들을 독려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교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어요."

광운인공지능고에 재직 중인 77명의 교직원 중 인공지능을 전공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기존 전공과목과 융합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커리큘럼을 새롭게 만들어야 했다는 것. 당연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인공지능을 자신이 가르치는 전공과목과 접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새로운 분야를 받아들이는 데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기술교육부장을 맡은 장종문 교사 역시 인공지능고로 변화해가는 과정은 엄청난 모험이었다고 말한다.

"저희가 전기·전자·통신, 정보컴퓨터 두 가지 과목으로 전문교과가 구성되어 있는데 정보컴퓨터 교사들의 거부감이 생각보다 컸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배울 땐 인공지능 개념이 없었거든요.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인공지능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하에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하이브리드 형태를 취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 중 일부는 그대로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현재의 방식으로 작동할 때 더 정확한 결과치가 나오는 교과목은 당연히 현 상태를 유지하되 시대의 흐름에 맞춰 조금씩 변화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총 5개 학과 중 3개 학과만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장종문 기술교육 부장교사를 주축으로 본격적인 교사연수를 진행했다. 연간 60시간 연수에서 더 나아가 90시간 연수를 적극 권장하면서 인공지능 전문

1 2 광운인공지능고 내에 들어선 인공지능교육체험관. 체험관에는 인공지능 수업과 체험을 위한 첨단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다.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격려했고, 학과별로 30%의 교사는 300시간 전문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업무분담과 시간적인 배려도 해줬다. 덕분에 지금은 인공지능 관련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교사도, 교원학습공동체를 구성해서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교사들도 생겨났다.

학과 개편해 인공지능 관련 3개 학과 신설

광운인공지능고는 지난해 '인공지능(AI) 고등학교' 사업에 선정되면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공지능 분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비용 3억 원을 지원받았다. 또 학과 개편, 컨설팅, 모니터링, 우선 연수 등의 기회도 얻었다. 전자·전기·통신 교육기관에서 인공지능 특성화 고등학교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이 필수였다. 이에 한국중등직업교육협회와 미래융합연구원 전문가를 초청해서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탄생한 학과가 인공지능 컴퓨팅과, 인공지능 전기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이다.

먼저 인공지능 컴퓨팅과는 신경망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링에 집중하는 학과이다.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미래산업 먹거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을 구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전기과는 내선공사와 승강기 설치·정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여러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전문가를 양성해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의 경우, 인공지능에서 필수적인 코딩기술전문가와 빅데이터 전처리 단계인 데이터 수집·분류를 전담하는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설된 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전자융합과에 재학 중인 김상우(3학년) 학생은 "기존 시스템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가 인공지능인 것 같아 매력적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공지능 전기과에 재학 중인 소권영(2학년) 학생은 "학교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좋다. 잘 배워서 사회에 나가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긴다."라며 변화하고 있는 학교에 거는 기대와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3 광운인공지능고는 올해 AI 컴퓨팅과, AI 전기과, AI 소프트웨어과를 신설, 미래형 인재양성에 나서고 있다.

4 학교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 미래산업 먹거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교육체험관 개관으로 창의융합교육

학교는 2020년부터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체험관 건립에도 주력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투자받은 1억 2천만 원에 혁신산업비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비 일부를 더해 총 4억여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고 올해 4월 23일 개관식을 가졌다.

체험관에는 가상/증강현실(VR/AR) 설계 및 체험존, 드론 체험존, 사물인터넷 체험존, 스마트팜, 블록로봇 등 인공지능 수업과 체험을 위한 첨단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다.

체험관은 지역주민에게도 개방 중인데 운영 초기임에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할 정도로 예약과 문의 전화가 많은 편이다.

'인텔 AI LAB' 수업도 체험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텔 AI LAB'은 교육부와 인텔이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광운인공지능고에서는 '인텔 AI for Youth'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9명의 지도교사와 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업내용은 인공지능의 개념, 통계 데이터, 컴퓨터 비전, 자연어처리와 같은 AI 기술역량을 기를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AI 윤리 및 보안과 같은 사회적 역량까지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작품이 '인텔 AI 글로벌 임팩트 페스티벌(Intel® AI Global Impact Festival)'에서 국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출품한 작품은 'AI 무드램프'로 기존 음성인식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감정을 파악해서 조명을 켜는 아이디어 작품이었다. 카메라로 사람의 얼굴을 찍어 눈, 입꼬리, 안면 움직임 등을 분석해서 감정에 따라 다른 색의 조명이 점화되도록 시제품을 만들어 출전했는데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에 참가했던 전자융합과 홍기준(3학년) 학생은 "코딩이라고 하면 어려워서 꺼려졌는데 AI LAB에 참여하면서 공부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개발한 작품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현재 체험관은 근면관 4층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추후 기존 시설 이동과 추가 예산 확보가 이뤄지면 건물 전체를 체험관으로 탈바꿈해 교내 학생들은 물론 중학교 진로체험, 각종 대회 개최, 초·중·고 교사연수 등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체험 거점학교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고 안착 위해선 정책적 지원 절실

이상종 교장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명까지 바꾸면서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10월에 있을 입학설명회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고 말한다. 인공지능고 선정과 구축 비용 투자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올해 2개교를 추가해서 총 10개 학교를 인공지능고로 선정했어요. 인기가 있다고 인공지능고를 추가 지정하기보다는 이미 선정한 학교에 국가장학금 지원이나 대학연계, 산업체 매칭과 같은 추가 지원이 이뤄져야 인공지능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고 직업계고 정원 미달 사태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학과명을 바꾸지 않은 전자융합과와 네트워크통신과도 2024년부터는 인공지능로봇과, 인공지능 네트워크과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학교의 이 같은 노력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AI 인재 배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대구 산격중학교 뮤지컬동아리 '반창고'

학교폭력 예방은 마음 치유가 먼저

"우리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들은 헤어지면서 늘 이렇게 인사한다.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 열린다. 다시 보지 말자는 인사는 누구라도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뜻이다. 최근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학교폭력 제로를 이뤄낸 학교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대구 북구 산격중학교(교장 원미옥)가 그 주인공이다. 그 중심에 뮤지컬동아리 '반창고'가 있다.

글 _ 편집실

무대에 올리는 나의 이야기

"오늘은 '침묵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해 볼 거니까 천천히 움직이면서 내 몸을 스스로 조절해 봅시다."

연극 수업을 맡은 석효진 강사는 대본 연습 전에 이렇게 몸풀기 시간을 가졌다. 처음엔 서로 장난치느라 어수선한 듯 보였던 학생들도 어느새 진지한 몸짓으로 놀이에 집중했다. 학생들은 신체놀이를 통해 절제하는 법을 배운다. 서정훈(1학년) 학생은 실내화도 벗어 던지고 놀이에 집중했다. 조심스러운 숨소리만 가득한 가운데 몇 차례 다시 놀이가 진행되었다. 김성민(1학년) 학생은 "조용히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재밌다."라고 말했다.

놀이를 통해 어색함을 내던지고 난 뒤 둥글게 둘러앉아서 대본 작업에 열중하는 부원들. "'와 이라노'라고 사투리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요즘 아이들의 입말이 더해진 대본은 마치 실제인양 생동감이 더해졌다.

뮤지컬동아리 '반창고'는 학기 초에 공연 주제를 선정한 후 학생들이 상황별 대본을 작성하고 미니 콩트 형식으로 발표를 한다. 이를 토대로 지도 선생님이 전체 대본을 구성해 학생들과 한 학기 동안 수정작업을 거친 후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극 연습과 노래 연습을 시작해 매년 11월에 발표회를 연다. 공연 한 달 전부터는 매일 방과 후 2시간씩 연습하는 강행군이 시작된다고. 오빠 따라 반창고에 왔다는 강하라(1학년) 학생은 "힘찬 오빠가 공연하는 것을 보니 멋있어 보여서 나도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작곡과 보컬 교육을 맡은 김가영 강사는 "아이들이 대본을 완성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곡 작업을 한다. 좀 느려도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 안에서 아이들의 성취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연극 수업 한 시간, 보컬 수업 한 시간을 알차게 보낸 아이들의 얼굴은 처음보다 환하게 피어 있었다.

'반창고'가 다루는 주제는 자아존중감 회복, 학교폭력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다.

1 2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잃어버린 나'

3 4 매주 토요일 모여 뮤지컬을 연습하는 '반창고'

> 올해는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준비 중이다.

소통으로 하나 되는 우리

2017년에 시작한 반창고는 어느새 6년 차에 접어들었다. 매년 한 작품씩 완성해 벌써 창작 뮤지컬만 5개, 완성된 곡은 20곡 이상이다. 2017년 'Who am I?', 2018년 '잃어버린 나', 2019년 '시선', 2020년 'Dream', 2021년 '지혜로운 학교생활'까지 공연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반창고가 다루는 주제는 자아존중감 회복, 학교폭력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다. 올해는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준비 중이다.

창단부터 반창고와 함께한 임민식 교사는 "반창고는 일반 뮤지컬동아리와 다르다."라며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사안에 휘말린 적이 있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모집한다."라고 설명했다. 반창고라는 동아리 이름도 상처받은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어 치료해 주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반창고를 붙여주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만들었다.

2013년의 산격중학교는 소규모 학교인데도 학교폭력 사안이 21건에 달하는 등 학생 생활교육이 시급한 학교였다. 소외계층의 학생도 많고, 학생들이 하교 후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경우도 많았다. 학생들이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며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다.

임민식 교사는 "집단상담프로그램과 한 편의 뮤지컬이 완성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성찰하게 되며 소통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라며 "관객의 박수는 참여 학생들의 삶에 든든한 정서적 지지와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라고 밝혔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동아리를 찾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5명이나 되는 지도 교사들은 포기가 습관처럼 자리 잡은 아이들을 수시로 관찰하고 상담하며 자연스럽게 동아리로 이끌었다. 이제는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는 8월 방송을 앞두고 촬영 중인 EBS다큐프라임 3부작에는 반창고의 이 같은 노력이 고스란히 담길 예정이다.

그 밖에도 동아리 부원들은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학교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이모티콘 제작과 배포, 학교폭력 예방 서명 대회 진행 및 교내 안전동아리와 협업 등 교내 인기동아리로 거듭나고 있다.

'나'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 '너'의 고통에 눈뜨지 못한다. 반창고의 출발지는 '서로 다른 각자'이지만 목적지는 '하나로 빚어낸 우리'이다.

5 6 한 편의 뮤지컬이 완성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성찰하게 되며 소통의 가치를 깨닫는다.

Mini Talk

강힘찬(3학년) 학생

성악을 배우다가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그만뒀다. 그래서 지금도 노래 연습할 때가 대본 연습할 때보다 즐겁다. 작년에 '지혜로운 학교생활'을 공연할 때 내 곡이 늦게 나와서 노래 연습을 많이 못 해서 아쉬웠다. 올해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부원들과 더 열심히 연습하고 싶다. 선생님도 아낌없는 간식 지원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하하

우다은(3학년) 학생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혹시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다. 작년에 언니들이랑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같이 즐겁게 공연 준비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올해도 다 같이 친해져서 재미있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 공연을 생각하면 떨리지만, 관객들의 박수소리를 생각하면 뿌듯한 마음이 든다.

한준(2학년) 학생

우리 공연을 보면서 관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폭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격하게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연습이나 공연이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고 노는 게 좋아서 시작하게 됐지만, 이제는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솔선수범해 보이겠다.

김성민(1학년) 학생

뮤지컬을 접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학교에서 하게 되어서 즐겁다.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야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친구들이 우리 동아리의 공연을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더 설렌다. 또 '반창고'에서 즐겁게 연습할 시간이 기대된다. 지금처럼 사이좋게 활동하면 좋겠다.

이혜린(1학년) 학생

뮤지컬이라든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색다른 경험 중이다. 그래서 대본 연습도 즐겁고 노래 연습도 신난다.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후에 노래 실력도 많이 늘고 자신감도 생겼다. 앞으로도 토요일 활동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싶다. 우리의 결과물을 보여줄 것을 생각하면 설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초은(1학년) 학생

평소 노래를 좋아하지만, 음치라고 생각해왔다. 선생님께 노래를 배우면서 실력을 많이 키울 수 있었다. 평소에 소리를 잘 내는 법을 기억하면서 노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연할 때 실수할까 봐 걱정되는데, 연습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한다. 친구들과 무언가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느낌이 너무 좋고, 내 의견이 반영된 대본으로 연습하는 것이 무척 뿌듯하다.

하태욱
경기 안성 신나는학교 교장

실패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속에서 아이들은 한 걸음 '더 성장'

지난 3월 경기도 미래교육의 가치를 담은 기숙사형 공립 대안학교 신나는학교가 개교했다. 중고교 통합학교로서 2024년까지 총 90명 정원을 선발한다. 공모를 통해 초대 교장에 부임한 하태욱 교장은 지난 25년간 영국의 서머힐학교 등 선진 대안교육과 미래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분야에 집중해 온 연구자다. 6월 20일, 현재 교사(校舍)를 빌려 쓰고 있는 안성 몽실학교에서 그를 만나 신나는학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글 _ 편집실

올해 3월, 경기도 안성에 문을 연 신나는학교는 공립형 대안학교다. 현재 전교생이 30명인 신나는학교는 중고교 통합과정으로 2024년까지 90명 정원으로 확대되어 운영된다. 올해 입학생은 현재 안성 몽실학교 4층의 공간을 사용 중이다. 폐교였던 보개초교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에 그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부임한 하태욱 초대 교장은 경기도의 '미래형 대안학교 해리포터학교 설립방안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바 있다. 이 해리포터학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세상에 없던 학교,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학교'다. 지난해까지 대학에서 대안교육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하 교장은 이곳 신나는학교에서 지난 25년간의 연구성과들을 녹여내며 실행해 가는 중이다.

'자유·민주·도전·진화하는' 신나는학교

"교장 공모에 응하면서 면접장에서 제가 한 전제는 하나였어요. 신나는학교는 기존의 근대학교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학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도 '파괴적이다' 할 만큼 혁신적으로요. 학교의 본질은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곳이에요. 미래학교에서는 융복합의 시대에 걸맞게 통합하고, 융합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마법을 가르치진 않지만, 어느 날 보면 쑥쑥 성장해 있는, 학교는 이처럼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이어야 해요."

하 교장은 신나는학교의 특성과 운영방침을 4가지 키워드로 소개했다. '자유학교, 민주학교, 도전하는 학교, 진화하는 학교'다.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그 첫 번째 목표다. 또 학교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교의 주인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합의로 이끈다. 하 교장과 인터뷰를 위해 마주 앉기 바로 직전에도 기숙사에서

아이들의 친구방 방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교사 회의가 한 시간째 진행 중이었다. 이렇듯 사소한 결정까지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3주체가 소통하고 합의하는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따른다.

"개교 후 한 달여 만에 신나는학교의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미디어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었죠. 한두 번은 교장인 제가 나서서 했지만, 이후에는 학생들이 학교 홍보위원회를 꾸려서 직접 미디어데이를 진행했어요.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이 기자들 앞에서 학교에 대해 직접 브리핑하는, 색다른 배움의 과정이 일어난 것이지요."

'#교육과정'과 플랫폼 학교

신나는학교는 도전하는 학교다. 기존의 근대학교가 지식의 수용만을 요구하는 '파이프라인'이었다면, 신나는학교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배움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결과물들을 축적해가는 '플랫폼'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하 교장은 "아이들은 이제까지 학교라는 '파이프라인' 속에서 살아가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면서 "신나는학교에서는 내가 배우고 싶은 걸 어떻게 구성해 나아갈지에 대해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하게 된다."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속에서 이곳의 아이들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나는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으로 불린다. '우물정', '샵', '해시태그' 등의 다양한 의미처럼, 다양한 교육과정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인다는 의미다.

"모든 교육과정은 자기주도성, 프로젝트 학습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기보다는 멘토로서 학생들의 '배움'의 과정을 지원하거나 함께하는 존재이지요. 기초지식이 중요한 지점은 물론 강의방식을 따르지만, 1:1 수업 등에서도 학생의 요구나 동기화에 따라 수업의 방식은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배움을 주도해 가면서 실제 삶에서부터 배우는 프로젝트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하지요."

6년의 교육과정은 기간별로 어울림1·2와 세울림 등 3단계로 세분된다. 최종 2년에 해당하는 세울림 단계는 진로만들기 과정이다. 하 교장은 "이때가 향후 신나는학교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소개다. 신나는학교에서 모든 배움이 '시험'을 위한 정답찾기가 아니라, 삶을 만들어가는 길찾기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되어 아이들은 다양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미래학교는 교사(校舍)와 교실에 갇히는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중심' 학교다. 폐교였던 보개초교 부지로 이전하는 신나는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의 공간을 마을로 향하는 공유공간을 통해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는' 글로컬(Global+Local) 정신이 실현되는 학교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마을이 학교와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아가게 된다. 하 교장은 대안교육, 미래학교와 더불어 이 마을교육공동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이기도 하다.

"미래형 대안학교의 선도모델로 이끌 것"

"고교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저는 학교와 불화하던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 하라는 건, 재미없어 했고요. 반면에 에너지는 늘 넘쳐 있어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퍽 산만한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웃음). 친구들과 함께 연극을 하거나, 문학의 밤 행사를 기획하고, 교지나 문집 만드는 일에 몰두하곤 했죠. 어찌 보면, 오늘의 저를 형성하고 있는 자산들은 이때 학교에서 '시키지 않던' 활동들에서 유래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지난 25년 동안 하 교장이 대안교육 연구에 몰입해 온 연유이기도 하단다. 실제로 하 교장은 영국 유학에서 귀국한 뒤, 자녀를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부모 세대의 학교에서는 하지 말라 하던 것들을, 아이만큼은 학교와 부모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국 유학 당시 석사 논문 역시 '서머힐학교 연구'다. 서머힐학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교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귀국하면 이 좋은 시스템들을 국내에도 소개, 적용해 보자 다짐했다는 그다.

"신나는학교에 부임한 지 100여 일을 넘기면서 '현장에 가서 일해보니 어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 대답은 '각오는 했지만, 쉽지 않다'예요. 하지만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잘 살아내고 있다고 자랑스레 말하곤 하죠. 교장인 저로서도, 선생님들도, 또 학생들도요.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배움을 실천하려면 당장은 낯설고 힘겨워해요. 아이들의 이 힘듦을 잘 관찰하면서 소통하는 일도 저희로서는 무척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학교에서, 이 힘듦의 성장통을 겪으면서 신나는학교의 아이들은 쑥쑥 더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고 한다. 올해 신나는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3:1이었다. 하 교장은 "내년에는 이 수치가 더 상승할 것 같아 외려 걱정"이란다. 그러면서 "신나는학교가 지향하는 '플랫폼' 학교로서 재임하는 동안 탄탄한 기본 틀을 갖추면서 미래형 대안학교로서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하기도 했다.

신나는학교의 6년 교육과정은 '시험'을 위한 정답찾기가 아니라, 삶을 만들어가는 길찾기 과정이다.
일주일 동안 연수로 인해 학교를 비워야 했던 교장선생님과 등교하면서 반갑게 해후한 7학년 이다은 학생(오른쪽)과 김민서 학생(왼쪽).

SPECIAL

대한민국 교육자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 4년간 새롭게 지역교육을 이끌 시도교육감들이 선출되어, 7월 1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지방교육자치가 진전되면서 지역 수준의 교육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지역교육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등 성과가 있지만, 여전히 '지역 없는 교육자치'라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는 17개 시도교육감이 제시하는 지역교육의 비전과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오늘날 지방교육자치의 과제는 무엇이며,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살펴봤다.

15 시도교육감 향후 4년간의 비전과 주요 공약
32 교육감 선거 결과로 본 지방교육자치의 과제
36 민·관·학이 함께하는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vol.480 JULY

특별기획 1 _ 시도교육감 향후 4년간의 비전과 주요 공약

시도교육감 향후 4년간의 비전과 주요 공약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다양성이 꽃피는 질 높은 공존의 교육'을 위해 노력

서울시민들께서 조희연의 8년과 서울 혁신교육의 성과가 더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임기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혁신교육 8년을 넘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으로 서울시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서울을 세계 교육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서울교육을 완성하여,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내내, 혁신교육의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을 오롯이 새기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완할 점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교육이라는 큰 기조는 유지하되, 경쟁 후보들이 비판적으로 던진 화두와 제안 역시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선거기간 TV연설에 나서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 종류의 자유를 '다양성 교육'의 틀 안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배움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서울교육은 '다양성이 꽃피는 질 높은 공존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번 선거를 통해 교육감 구성이 다양화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부족한 제가 다음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다양하게 표출된 민의를 받아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도교육감님들이 '더 질 높은 공교육'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유초중등교육재정 축소 문제,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 의제 논의과정에서 유초중등 교육의 입장을 반영하는 문제 등 공통의 의제들이 있습니다. 이 공통의 의제도 힘을 모아 지방교육자치를 잘 대변하고 산적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심부름꾼 역할을 잘 해내겠습니다.

주요 공약

- 하나, 더 질 높은 교육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 배움이 있는 수업, 성장을 위한 평가/ 질 높은 돌봄·방과 후 지원/ 학교급식을 오찬으로)
- 둘, 더 따뜻한 교육(민주시민을 세계시민으로/ 차별 없는 무상교육복지 확대/ 정의로운 차등 실현/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 셋, 더 세계적인 교육(기후 위기 대응 교육 선도/ 서울교육을 '세계표준'으로)
- 넷, 더 건강한 교육(학교의 모든 폭력 OUT/ 학생 주치의 제도 전면 시행/ 학생 진로의 '페이스메이커')
- 다섯, 더 충실한 교육(기초·기본학력과 학습중간층 복원/ 코로나 후유증 치유)

부산광역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

"부산발 제2의 교육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부산의 미래입니다. 최상의 교육과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교육을 목표로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로운 부산교육을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각자의 희망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미래형 교육환경 속에서 인성과 창의를 배우고 재능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예산은 학생들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습니다.

인성교육 복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협동과 배려 등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소통·공감 능력을 함양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부산의 대학과 산업현장으로 진출하여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치게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인재를 찾아 교육도시 부산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부산이 다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는 부산발 제2의 교육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주요 공약

- **하나,** 학력 깜깜이와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부산교육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 **둘,** 이념 중심 노동·인권·민주교육을 철폐하고 인성교육을 복원하는 등 사람이 아름다운 부산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셋,** 전국 최고 수준 스마트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미래를 책임지는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 **넷,** 불공정·코드인사, 소통 부재 불통 행정을 탈피하고 눈에 보이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다섯,**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교육,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교육, 온종일 마음 든든한 부산교육을 만들겠습니다.
- **여섯,**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강은희 교육감

아이중심, 교실중심, 세상을 바꾸는 대구교육

지난 선거기간 동안 대구교육의 저력과 희망을 말씀하시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었고, 대구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도 읽었습니다.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뜻을 모아 대구 아이들을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교육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대구교육은 이러한 시대 변화, 세대 변화, 정책 변화, 지구촌 변화를 담은 교육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미래역량교육의 큰 방향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현장을 세세하게 살펴, 지원을 강화하여 공약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학생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배움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선생님은 가르침 그 자체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하며, 학부모는 학교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대구교육'

이것이 제가 꿈꾸는 대구교육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생활하는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결과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과정을 즐기면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중심, 교실중심'을 대구교육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삼아 '아이의 좋은 성장을 이끄는 교실'을 만들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대구의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겠습니다. 대구의 1만 300여 개의 교실이 학생 저마다의 행복한 꿈을 키우는 공간, 서로 다른 빛깔을 뽐내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꿈꾸는 '다양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교육가족과 함께 일궈낸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성과와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 중심, 교실 중심, 세상을 바꾸는 교육'으로 세계 수준의 대구교육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주요 공약

- **하나,** 학습역량을 높여 모두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 **둘,** 따뜻한 마음을 키워 올바른 인성을 기르겠습니다.
- **셋,** 더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모두의 가능성을 열겠습니다.
- **넷,** 학교의 안전을 채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다섯,**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배움의 장을 넓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학생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인천 미래교육의 방향을 토대로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학생성공시대'는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학생성공시대로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만들어 가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기본은 안전한 학교입니다. 감염병, 재해재난, 등굣길, 급식,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학력, 돌봄, 심리·정서·사회성,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촘촘하게 모든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만 5세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첫 학교(초1) 입학 준비금과 중·고 체육복 지원,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교육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전공과 지원 확대 등으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디지털교육, 생태환경교육, 글로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로 자라도록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인 1노트북 보급, 코딩교육 전면화, 10만 그린리더 양성, 인천형세계시민교육 및 국제교류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에 기반한 사이버진로교육원과 1대1 맞춤지원 1,000명의 멘토단을 운영하고, 글로벌스타트업학교 및 반도체고등학교 신설, AI특성화 학과 및 로봇과 신설, 정시·수시 지원단 확대 개편 등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디자인해가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공약

- **하나,**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 **둘,**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셋,**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생태교육
- **넷,**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 **다섯,**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이정선 교육감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광주교육의 다양성을 꽃피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광주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4차 산업혁명, 기후환경위기,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미래 사회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광주교육은 지난 12년간 혁신교육을 통해 학교문화 개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학생인권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실력 하락과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 부족, 이분법적 갈라치기식 행정으로 인한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 조장 등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광주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광주교육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광주교육이 처한 위기를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통해 극복하겠습니다. 혁신적 포용교육은 다양성을 품은 실력 광주,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를 완성하는 공정교육, 광주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을 지향합니다.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광주교육의 다양성을 꽃피우겠습니다. 현장에서 길을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광주시민과 함께, 교육구성원들과 함께 광주교육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교육의 장을 학교와 마을로 넓히고 학교자치와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해 광주시민의 생각으로 광주교육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은 희망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교육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실현시킬 수 있는 광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을 넘어선 '혁신적 포용교육'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육, 다양한 성공방정식을 만드는 교육을 이루겠습니다.

주요 공약

- **하나,** 다양성을 품은 실력광주 구현
- **둘,** 보편적 교육복지 완성
- **셋,** AI 미래교육 추진
- **넷,** 안전하고 튼튼한 학교 만들기
- **다섯,** K-컬처를 주도하는 문화예술체육 교육 추진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꽃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변화가 가속화하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의 행복과 성공, 그리고 국가의 발전은 바로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저의 궁극적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육을 잘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행복하게 잘 사는 미래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전교육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온 대전교육이 앞으로 완성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안정과 혁신의 미래교육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님이 만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대전교육을 실현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공약

- **하나,** 문·예·체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 대전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미래창의융합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 **둘,**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자율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 스스로 개척하는 진로·직업교육으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셋,** 출발선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잠재력을 키우는 맞춤교육, 포용과 배려의 교육복지 실현으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넷,**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확립,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교육 회복을 위한 건강한 배움터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다섯,**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가족, 교육현장 중심 행정 지원,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 운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

"울산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겠습니다. 지난 4년 아이들만 바라보고 달려온 여정에 시민, 학부모님들, 교직원들은 물론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많은 응원과 공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울산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시민에게 한 약속을 빠뜨리지 않고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형 학교에서 새로운 꿈을 찾아 꽃피우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학교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배움의 기본을 튼튼히 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도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생태교육 대전환과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울산교육을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 지원해 빠른 교육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앞으로 4년도 교육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펼쳐, 더 좋은 교육으로 울산교육의 변화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산해 울산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울산교육은 묵묵히 일하는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분들의 열망을 잊지 않고 그분들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부모찬스'가 아니라, '공교육 찬스'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더 좋은 교육,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교직원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울산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되고,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달려가겠습니다.

주요 공약

- **하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미래책임교육
- **둘,**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교육복지
- **셋,** 참여하고 소통하는 학교자치 실현
- **넷,**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다섯,** 새로운 도약 교육도시 울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세종 시민들께서 다시 4년을 주셨습니다. 지난 8년 혁신교육의 발걸음을 지지하셨습니다. 온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헤쳐온 세종교육공동체의 노력을 인정하셨습니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약속에 믿음을 보내셨습니다. 더 잘하라는 따끔한 꾸지람도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앞으로 4년을 3선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10년의 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수도'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으로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우리 교육은 '혁신'을 향해 달려 왔습니다.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교육 주체의 자발성을 기초로 창의적 교육과정과 학생중심의 교육을 꽃피우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소수의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커다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따라가는 데 급급할 것인가, 미래를 앞질러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보여준 것처럼 미래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되는 잘 닦여진 길이 아닙니다. 전염병, 전쟁,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 등 끊임없이 새로운 위기와 기회가 파도처럼 밀려 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에 올라탈 용기와 방법을 배우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은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이 견지할 첫 번째 원칙과 방향은 '한 아이 한 아이의 배움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학교 혁신을 넘어서 학생 개개인의 배움과 삶에 더 다가가야 합니다. 한 아이 한 아이에 맞는 특별한 배움과 풍부한 삶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의 문명화 정도를 판단하는 잣대는 '인간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과 배려가 얼마나 세밀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지난 8년 세종교육의 비전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를 새롭게 혁신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특별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펼치려고 합니다. 스스로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삶의 폭을 넓혀주려 합니다. 새로운 세종교육의 꿈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입니다.

주요 공약

- **하나,**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둘,**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으로 배움의 공간과 시간을 넓히겠습니다.
- **셋,** 누구나 안심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넷,** 방과 후에도 마을에서도 아이들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우도록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다섯,** 시민과 함께 교육자치를 키우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임태희 교육감

"'자율, 균형, 미래'를 핵심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경기교육이 '자율, 균형, 미래'를 핵심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경기교육 학생은 전국 학생 가운데 1/4이 넘을 뿐만 아니라, 학교 수와 교육재정 등 그 규모도 전국 최대입니다. 경기교육의 변화가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며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4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경기교육은 학생이 인성과 학력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과 시민의식을 갖추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나타난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공지능 하이테크 기반 학력 진단을 도입하고 학습 맞춤형 교육으로 학력을 높이겠습니다. 또, 학생 1인에게 1스마트기기와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장애학생 교육권, 다문화교육을 강화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차세대 맞춤형 평가 도입은 경기도형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 디지털 친밀도(DQ), 창의융합교육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융합인재 양성에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도 강화할 것입니다. 하이테크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삶과 일자리 연계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직업계고 충원율과 취업률을 높이겠습니다. 나아가 청소년 창업을 지원하고 단계별 진로교육 기회도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학교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면서도 학생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동시에 보호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경기교원보호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학 연계 교원 연수와 학습연구년제 등을 운영해 교원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이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시작합니다.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으로서 학생 중심, 학교 중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교육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교육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공약

- **하나,** AI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학력을 갖춘 미래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 **둘,**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형태, 학습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을 확대해 능력과 진로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셋,**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넷,**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물리·정서적으로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교육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 **다섯,** 교원이 최고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과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제를 확대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Gangwo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신경호 교육감

"강원 학생을 올바른 인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2년의 강원교육의 변화에 대한 도민의 강한 열망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심각한 학력저하, 편향적 이념에 지배된 교육에서 이제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의견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 잘 배우는 학생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강원교육을 열어가기 위해 지난 12년의 강원교육을 성찰하고 새로운 강원교육을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민이 강원교육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력 향상과 바른 인성입니다.

먼저 학습 소외가 없는 교실, 다양한 진로진학이 가능한 강원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진정한 조기개입 실천과 체계화된 지원으로 기초학력 미달률 제로화에 도전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기본학력 확보를 바탕으로 정시와 수시를 완벽 지원하고, 지역별 진로진학센터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대입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원도형 고교학점제로 '온강원교육과정'과 '무한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강원도가 고교학점제의 소외지역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여 만족도를 끌어올리겠습니다.

강원 학생들을 올바른 인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책과 예술로 정서를 안정시키고 SNS에서 노출되는 범죄의 위험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학교-지역-세계를 잇는 연대와 참여가 가능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여 세계인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유일 분단도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강원도만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 특화된 '평화·통일교육'과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강원도를 세계의 학생들이 배우고자 찾아오는 '세계시민교육의 메카'로 성장시켜 전국을 선도하는 최고의 강원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공약

- **하나,** (가칭)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 **둘,** 지역별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 **셋,** 강원메타버스체험관 구축
- **넷,** 맞벌이 학부모 희망 돌봄 수용률 100% 달성
- **다섯,**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윤건영 교육감

"지속가능한 충북교육-미래는 교육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충북 도민과 교육가족께 약속한 교육비전은 '지속가능한 충북교육-미래는 교육이다'입니다. '지속가능'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시대적 화두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걸맞는 교육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교육의 품, 학교의 꿈, 아이의 힘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비전으로 사용한 지속가능이라는 표현에는 앞서 이뤄졌던 교육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충북교육을 추구한다고 해서 과거 있었던 것들과 단절하고 전혀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정책이나 제도, 사업 중에서 유지하거나 보완할만한 것들이 있다면 이어가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을 준비하고 이를 수행해나가겠다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들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는 교육'이라는 문구에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걸맞는 교육만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와 이에 대한 의지가 실려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충북교육은 이런 의미와 의지를 구현해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품, 학교의 꿈, 아이들의 힘'을 교육지표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품'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교육의 주체들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고 공감하며 동행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학교의 꿈'은 학생들이 꿈을 꾸고 그것을 키우는 공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품'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아이들 저마다의 능력과 재능을 키워줄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미래를 열어나갈 학생들의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원하고 그리는 충북교육, 즉 충북교육의 미래이자 저의 교육적 포부는 아이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적성, 능력 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교육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행복한 충북교육, 학교교육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요 공약

- **하나,** 성장중심 맞춤형 교육
- **둘,** 充Book(충북)으로 가는 111독서운동
- **셋,** 글로벌 리더 양성 메카 충북
- **넷,** 충북 노벨 20 프로젝트
- **다섯,** K-Spirit 세종대왕 한글창조학교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교육으로 혁신 미래교육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충남교육은 미래교육으로 한 발짝 더!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교육으로 충남교육을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1번지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충남교육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서 학생 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을 비전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교육,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미래교육을 선도할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지난 8년 충남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완성하였고, 중학교 신입생 전원 무상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충남 15개 시·군에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학교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충남 혁신학교와 혁신동행학교 운영으로 충남교육의 질적인 성장과 더불어 대학, 지역, 학교가 함께 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폭력과 낙오 없는 학교를 위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 '어울림톡'을 운영하여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제 충남교육은 8년간 혁신교육의 성과 위에 미래교육의 문을 활짝 열고 혁신 미래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혁신 1기는 청렴한 교육행정으로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혁신 2기는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이제 맞이할 혁신 3기는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교육으로 혁신 미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대전환을 준비하며 학생들의 참 학력을 길러주는 미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습주도성을 키우는 미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력 회복을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한 뼘 더 성장하는 인성교육으로 평화로운 충남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학교폭력과 아동학대가 없는 충남교육을 위해 아동학대 온라인 통합지원 시스템과 학생 종합관리 일원화 시스템을 연계하여 심화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하게 웃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의 충남교육에 내일의 미래교육을 담겠습니다. 혁신교육의 탄탄한 반석 위에 지은 안전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학부모는 만족하며, 교사는 자긍심으로, 지역사회는 신뢰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의 닻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공약

- **하나,** IB 교육과정 운영, 무학년제 등 학제 자율형 학교 운영
- **둘,** 15개 시·군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구축
- **셋,** 교육정책 학생자치 온라인 플랫폼, 학생참여 예산제 확대 운영
- **넷,**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마음치유센터 설립
- **다섯,** 초등 학급당 학생 수 20명, 중고등 24명으로 단계적 감축

전라북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2030년 이후 미래사회를 살아가게 됩니다.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는 데 주력하여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키워내야 합니다. 기초·기본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력, 소통능력, 협업능력을 키워야 하고 인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문학적 소양, 예술적 감수성, 문예체 교육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미래를 여는 교육', 전북교육의 비전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지역과 함께, 생태환경과 함께, 세계와 함께, 더불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자는 뜻입니다.

학생 중심 미래교육의 첫 번째 과제는 교실혁명이고 핵심은 수업혁신입니다. 먼저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수업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설치, 수업연구회, 학습연구년제 확대 등을 통해 교수학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겠습니다. 기초기본학력을 탄탄히 하고 그 기반 위에 창의력을 키우는 창의융합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신장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해서 아이들의 학력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취약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보다 많이 확충하고 상담교사도 더 배치하여 심리·정서적 문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기초학력뿐 아니라 기본학력도 끌어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별로 겪고 있는 학력지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학력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학생의회를 운영하여 학생대표가 정책을 제안하고 검토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등과 협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공공회의' 체제를 만들어 먹거리, 안전, 폐교활용, 평생교육, 방과후학교, 돌봄, 마을교육공동체, 진로진학, 연계 교육과정, 글로벌 학생 해외연수 등 복잡한 문제를 협력하여 풀어 나갈 것입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전북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소통, 변화와 혁신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주요 공약

- **미래** : 학생들의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 **책임** : 공교육 강화로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
- **협치** : 지역과 함께 학교를 살리겠습니다.
- **안전** : 안전과 건강, 맘(Mom)편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자치** : 자치와 참여, 활기찬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공동체** : 공존과 상생의 민주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

"계승과 혁신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1년, 주민직선 교육자치 12년이 지났습니다. 커다란 성과도 있었지만, 지역소멸이라는 큰 과제가 남았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지역소멸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분권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한 미래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의 60%가 사라진다고 할 만큼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소멸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는 것이 우리의 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2년 주민직선 교육자치는 교육 불평등 해소 등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교육력이 저하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교육현장의 과감한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민심은 바로 계승과 혁신이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교육의 가치는 계승하고 과감한 미래교육을 위한 현장의 혁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계승과 혁신을 통해 전남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남형 교육자치이고, 두 번째는 미래교육입니다.

전남형 교육자치는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를 만들고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해 일자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전남에서 사람을 키워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으로 지역소멸을 막아내겠습니다.

미래교육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당당한 인재가 되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요 공약

- **하나,**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둘,** 신뢰받는 행정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입니다.
- **셋,** 마을이 함께 사람을 키워 일자리를 만듭니다.
- **넷,** 미래교육으로 디지털 실력전남을 만듭니다.
- **다섯,** 교육기본소득으로 지역소멸을 막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임종식 교육감

"흔들림 없는 미래교육 정책과 온전한 교육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교육감으로서 부모의 품처럼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최우선 기준은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이어 왔고,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미래교육 대전환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4년 전 교육감 선거 때 약속했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교육,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모든 아이가 꿈을 이루는 교육, 소외되는 아이와 지역이 없는 교육, 소통과 존중하는 학교문화, 학교업무 정상화 등 6가지 약속을 공약이행률 99.6%로 지켰습니다.

앞으로 4년은 지난 4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미래교육 정책과 온전한 교육회복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왔으며, 앞으로 4년은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경북교육'과 '흔들림 없는 미래교육정책 추진, 온전한 교육회복'이라는 두 가지 비전으로 경북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미래교육은 따뜻한 인성교육과 미래역량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인성교육은 행복교육, 경제교육, 문화예술교육, 나라사랑 및 세계이해교육 강화를 통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래역량교육은 아이들이 즐기면서 배우는 창의융합 역량교육입니다. 지난 4년간 구축해 놓은 미래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놀이와 체험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학습자 주도의 배움을 실현하겠습니다. AI교육, 메타버스 활용교육, 권역별 창의융합 에듀파크 구축,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자주적인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주요 공약

- **하나,** 삶의 힘을 키우는 인성교육으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키우겠습니다.
- **둘,** 본격적인 미래교육 대비 수업혁신으로 한 명의 아이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셋,** 어떤 재난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넷,** 맞춤형 복지 확대로 모두가 행복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다섯,** 서로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조성 및 소통과 학교지원 강화로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행정의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박종훈 교육감

"새로운 선진국형 교육 모델을 경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이 우리를 덮쳤고, 우리 경남교육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원격수업처럼 지금까지 상상 속에나 존재했던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인 지금, 우리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교육을 위해 다시 새로운 과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의 손실이 큽니다. 기초학력처럼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지역 간 발생하는 교육격차처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으며,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나 사회관계처럼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도 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경남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3선의 경험과 역량으로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맞춤형 미래교육 체제를 완성하겠습니다. 학생 각자가 지닌 성장 속도에 맞추어, 스스로 꿈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주는 학생맞춤형 교육은 우리 교육계의 오랜 바람이자 목표입니다. '빅데이터-AI플랫폼 아이톡톡'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의 학생맞춤형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인 학생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12년간의 학습이력 관리로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의 꿈을 실현하는 경남교육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구상하고, 경남에서 시작되는 학생맞춤형 미래교육 체제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육을 회복하는 일과 학생맞춤형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서로 다른 각각의 일이 아니라 둘이 동시에 맞물려 진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교육을, 그리고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일이며, 이 일에 저의 모든 노력과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안전과 돌봄, 나아가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환경을 지키기 위한 생태전환교육까지, 작지만 소중한 가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 임기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구축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키워주는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새로운 선진국형 교육 모델을 경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공약

- **교실수업 혁명** : 대한민국 최초 빅데이터-AI교육체제 구축
- **교육복지 강화**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사회적 책임 완성
- **평화로운 학교** : 통학 안전부터 학교폭력예방까지 학생 안전 강화
- **지속가능한 교육** : 생태전환교육 강화, 교육생태계 확장
- **행복한 일터**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정상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김광수 교육감

"진심을 담은 소통의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진심을 담은 소통의 교육행정'을 추진하여 제주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여러분과 함께 제주교육의 진정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대화하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하겠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갈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면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열린교육감실과 찾아가는 교육청을 운영하여 교육가족 여러분 및 도민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갈등조정관제도는 제주교육 행정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빚어질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교육주체 청원제도를 상설화하여 교육가족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밀학급으로 인한 수업권 지장 및 통학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에 여·중고를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도심 개발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고 예술고와 체육중고를 전환하거나 신설을 하는 등 고교체제 개편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장점을 살리고 다양한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및 특수교육 보조교사 채용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정확한 학력수준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 브릿지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상담지원단을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진로,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과 관련한 법률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통학길은 위험합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등굣길인 '통학올래'를 구축하여 아이들의 등하굣길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초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여 첨단기기의 충분한 보급이 필요합니다. 창의력 있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무상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를 활용한 코딩교육을 활성화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인문학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을 향상시키고 제주인의 정체성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공약

- **하나,** 더불어 쌓아가는 돌담형 제주교육
- **둘,** 미래를 선도할 고교체제 개편
- **셋,**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 **넷,**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 **다섯,**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주형 미래 교육 강화

글 _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교육감 선거 결과로 본 지방교육자치의 과제

66
지방교육자치가 진전하고,
지역교육 수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수 교육계와 진보 교육계의
정책이 수렴하고 있다.
99

진화하는 교육감 선거

새롭게 4년 동안 지역교육을 이끌 선장을 선출하였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나 '로또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교육감 선거가 거듭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육감 선거 초기에는 후보자가 난립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려웠지만, 선거를 치르면서 교육감 선거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두 명의 후보자가 정면 대결하는 1:1 구도로 선거를 치른 지역이 늘고 있다. 2010년 치러진 교육감 선거 전국 평균 경쟁률은 4.63:1이었으나, 2014년 선거는 4.17:1로, 2018년 선거는 3.47:1로 경쟁률이 낮아졌다. 올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 경쟁률은 3.35:1이었다. 두 명의 후보자가 정면 승부를 펼친 지역은 2010년 두 곳이었고, 2014년과 2018년에는 각각 한 곳과 네 곳이었다. 2022년에는 일곱 곳에서 1:1 구도로 교육감 선거를 치렀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 초기에는 후보자 기호가 투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후보자 기호를 기재하지 않고, 후보자 이름 표기 순서를 지역별로 다르게 하면서 기호 효과는 완전히 사라졌다. 교육감 선거 공약을 알지 못한 채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실 교육감 선거만을 특별히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방의원의 공약을 잘 알고 투표하는 유권자는 얼마나 많을까? 지방의원의 경우 공약을 알지 못한 채로 소속 정당을 보고 '묻지마 투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기호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지만, 교육감 선거만 특별히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감 선거를 거듭하면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통 분모가 많아진 지역교육

언론은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를 진보 성향 교육감과 보수 성향 교육감이 각각 아홉 명과 여덟 명 당선되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기도 하며, 지난 4년 전에 비하여 보수 성향 교육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점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 대약진' 또는 '진보 성향 교육감 퇴조'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출된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감 후보자들 간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2010년 선거 당시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이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하였고, 2014년 선거 과정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제기되지 않았다. 후보자들 공약에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에서 진보 성향 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한 17명의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을 살펴보면, 비슷한 공약이 상당수 눈에 띈다. 지방교육자치가 진전하고, 지역교육 수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수 교육계와 진보 교육계의 정책이 수렴하고 있다. 교육복지정책을 둘러싸고 보편복지 접근과 선별복지 접근 사이에 대립이 존재했지만, 근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과 학생 평가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또,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이나 또 다른 의미의 미래교육을 준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중등교육의 방향에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존재하며, 교육청 간 선의의 정책 경쟁이 이루어질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력 논쟁'이 남긴 과제

이처럼 교육감 후보자들 사이에 정책 공약이 비슷했지만, '학력'은 여러 지역 선거에서 쟁점을 형성했다. 대체로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자들은 지난 십여 년 동안의 학교 변화 과정에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진보 성향 후보자들은 수세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였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유일하게 쟁점이 된 것이 '학력'에 관한 문제였다.

선거 결과를 보면, '학력 논쟁'에서 적지 않은 지역 유권자들이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 전 선거 결과와 비교하여 이 문제를 제기한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 결과가 '학력이 낮아졌다'는 주장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혁신학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당시에도 여러 실증적 연구는 학력 저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혁신학교가 비혁신학교에 비교하여 학력

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상당수 혁신학교가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지역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혁신교육이 학력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은 온당하지 않다. 또, 국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는 자료를 학력 저하 근거로 삼기도 하지만, 성취도 평가가 표집 평가로 바뀐 이후 학생들의 수험 태도나 교사들의 수험 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래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교육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19의 영향일 수도 있다.

학부모들이 '학력 문제'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지난 수년 동안 이루어진 교수-학습과 학생 평가 방식을 개혁하는 과정에 불만을 지녔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경쟁적 교육이었고, 이것이 학생들의 성장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또, 과거의 성적표는 학생의 순위를 알려줄 뿐, 어떤 부분을 잘 하고,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할지를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표를 없앴다. 이처럼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성적표를 없앴다면, 그 대신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사교육에 대한 의존은 더 높아지게 되었고, 이것이 부모들의 불만을 사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학력 문제'를 제기하여 당선된 교육감들이 십여 년 전과 같이 고부담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숫자로 표시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한다면, 그런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다. 과거의 경쟁교육을 다시 부활시킨다면 아이들이 온몸으로 거부할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경쟁적 요소는 줄이되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두텁게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지역 없는 교육자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교육감 선거를 거듭하면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교육감 선거가 제도로서 안정성을 갖춘 것은 아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90만여 표에 이르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무효표에 비하여 2.6배가 많은 것은 교육감 선거 제도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를 제기한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지방교육자치가 진전되면서 지역 수준의 교육정책을 활발하게

66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도 보조를 잘 맞추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슬기롭게 교육정책을 펼쳐가기를 기대한다.
99

추진하고, 지역교육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등 성과가 있지만, 여전히 '지역 없는 교육자치'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는 학교 교직원들과 일부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향상시킨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학교교육을 지역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전개하면서 지역 속의 교육, 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상당수 주민들, 특히 학생 자녀를 두지 않은 주민들은 지방교육자치를 체감할 기회가 많지 않다. 결국, 지방교육자치가 '지방'이 빠진 '교육자치'로 운영되고 있는 셈인데, 이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지방교육행정의 사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갈급한 과제인 돌봄 문제에 시도교육청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학교 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일을 전개할 때 교육자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제고된다.

둘째, 앞에서 예시한 과제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전개할 수 있는 일들이다. 현재 교육자치는 광역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초 단위 지역교육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장 선임 방식을 개선하거나,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장이 협력하여 지역의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함께 가꾸어 가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자치는 전문가들의 교육 리더십(Professional Leadership)을 보통 사람들이 통제하는(Layman Control)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감을 주민이 선출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감을 통제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지역주민 교육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교육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도 보조를 잘 맞추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슬기롭게 교육정책을 펼쳐가기를 기대한다.

글 _ 양병찬 공주대 교수

민·관·학이 함께하는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한국의 교육자치는 일반행정과 분리된 독립 교육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역 교육청의 수장(교육감)은 직접 주민선거[1]에 의해서 선출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행정 관서인 교육지원청의 책임자인 교육장은 교육감에 의해 임명된다. 이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자치권한은 대단히 취약하다. 기초자치단체는 '교육경비지원'이라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학교들과 교육지원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정도로 돕는 상황이다. 이러한 독특한 맥락에서 교육청 중심의 교육자치는 한 지역사회에서 완결된 자치를 이루지 못해서 많은 곤란한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교육청·자치단체의 새로운 협력: 혁신교육지구

최근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 사업들은 기존의 교육청 중심의 교육자치를 넘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협력과 주민들의 교육에의 주도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다. 기초자치체가 지역 교육에의 개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도시'를 자처하며 다양한 민·관·학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자치 1번지'라고 자칭하면서 민관학정협력체계를 구축해가는 시흥시를 비롯하여, '교육재단'을 만들어 교육도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오산시, 주민의 교육회의('교육민회'라 부른다)를 만들어 도시의 교육 담론과 마을교육과정 등의 실천을 만들어가고 있는 순천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교육자치 실천 사례들에 나타나는 행정 단체 차원의 교육자치의 한계를 넘기 위한 주민자치의 교육거버넌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교육과 돌봄은 지역사회의 모든 책임이었다. 그러나 근대학교가 생겨나 학교에 교육의 책임이 옮겨 갔으며,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생겨난 공동체의 붕괴는 학교와 마을을 분리시켰다. 삶과 분리된 학교교육으로 여러 가지 교육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연계가 요청되었다. 최근의 움직임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의 내용을 채우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광역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도시)을 지칭한다. 혁신교육지구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을 통해 도시 전체의 교육적 지원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1년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6개 도시에서 시작되어 이후 2013년에 전라남도에서 무지개교육지구를 선정하면서 2015년에는 서울, 인천, 강원, 전북, 충남 등으로, 그리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90개 지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교육 시스템 구축, ② 지역사회 기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③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④ 공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주민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 제고 등이다. 초창기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주로 교육경비 활용에 중점을 두었지만, 점차 성숙되면서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교육적 이해를 공유하고,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개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모색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위 사업의 목적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②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으로 주민의 교육 참여를 촉진하는 시도이다. 혁신교육지구가 전국에 확산되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자치단체와 교육행정 간의 협력의 어려움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법적 경계로 인한 행·재정의 이원화나 일하는 방식의 차이 등은 두 행정기관을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이러한 관-관 협력의 한계를 넘기 위한 주민자치적 차원의 교육거버넌스를 고민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이 삶의 중요한 과제인 지역의 교육을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결정하게 되는 주체적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순천시나 시흥시 등 선진적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지역과 협력하는 학교를 일반화하는 동시에 지역 단위 풀뿌리 교육자치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도 2020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확산

1 1991년 교육자치가 시작되었을 당시는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던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만이 참여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거쳐 참여정부에서 어렵게 주민 직선으로 정착되었다.

하기 위해 '미래형교육자치지구사업'을 공모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육협력센터와 마을교육자치회, 교육부 내부 사업들 간의 연계, 타 중앙 부처의 관련 사업들을 교육사업들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협력센터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 사무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센터로 사업 전반의 연계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마을교육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학부모, 학교 구성원들의 협력적 의사결정 회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정 단체는 아니지만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감으로써 실제적인 협력 구조(거버넌스)를 만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교육거버넌스 : 풀뿌리 교육자치

교육거버넌스란 민관 주체들이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궁리하면서 학교와 지역교육 전체를 지원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움직임이다. 이를 통해서 주민과 당사자들이 삶의 중요한 과제로서 지역의 교육을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거버넌스가 기초지자체(시·군·구)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였다면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는 주민이 주체가 되고 학교와 함께 만들어 가는 풀뿌리 교육거버넌스가 요청된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서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의 강화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 것이다. 지역과 연계된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 당사자 주체인 주민과 학부모, 아동, 교사 그리고 행정, 학교와 마을 등의 활발한 교류가 필수적이다.

최근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 중앙정부에 의해 학교가 문을 닫고 공공서비스가 정지된 상황에서 아이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다. 공간 중심, 프로그램 중심으로 작동된 지역사회 안전망은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지역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촘촘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순천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서 <지역교육력회복실천공동체>라는 느슨한 교육문제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민·관·학이 함께 교육 과제를 한 달에 한 번 토론하는 '정담회(情談會)'라는 교육민회(敎育民會, 비공식적인 의사논의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새로운 관계 도모하는 행정협력, 교사와 환경운동가, 마을활동가들의 협동적 교육과정 개발(東江마을교육과정), 지역 교육자원(교육경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의 협의 과정 등으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아동·청소년들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교육은 학교에서'라는 학교 완결형 교육을 지역사회 네트워크형 교육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은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을 공부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기 통제(결정)력을 갖는 지역의 배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금 전국에 부는 마을교육공동체 바람은 미풍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교육 결정권과 전체적 교육구조, 패러다임 등 한국 교육과 주민자치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싶다.

건강체력 증진! 모두가 힘 모은다

글 _ 편집실

건강체력교실은 저체력 학생, 신체활동 기피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즐겁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교, 지역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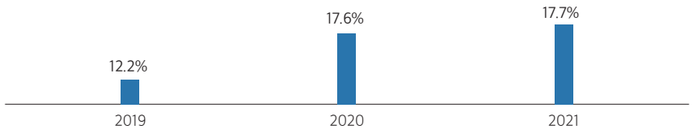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체육수업 부족, 신체활동 제한으로 운동량이 감소해 저체력 학생이 늘고 있다.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서 저체력에 해당하는 4·5등급 비율은 2019년 12.2%에서 2020년 17.6%, 2021년 17.7%로 급등했다 <그림 참조>.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건강은 물론이고 정서·학습 등 다방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워싱턴 D.C.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당 평균 90분 이상 체육수업을 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교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OECD 교육2030(2018)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을 한 경우, 작업기억과 집중시간이 향상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활동이 또래 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다.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건강체력교실 개요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초5~고3의 건강 체력 상태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른 신체활동을 처방하는 의무평가 제도
  *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 (필수)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비만(체질량지수), (선택)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세평가 등
- **건강체력교실**: 희망학생, PAPS 결과 저체력(4-5급) 및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규 또는 비정규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건강체력교실)
- **절차**(예시):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 체력급수 산정 → 건강체력교실 운영

그림 - 학생건강체력평가 4·5등급(저체력) 비율



시도교육청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

이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체력을 강화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정서·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건강체력교실 등 학교체육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지원한다. 우선, 신속한 체력진단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상반기에 앞당겨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건강체력증진 관련 특별교부금 31억 9,600만 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부하였다.

건강체력교실은 저체력 학생, 신체활동 기피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즐겁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교, 지역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먼저, **서울교육청**은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식단, 생활 습관 등 영양·보건 교육과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의 체력, 면역력, 활력을 키울 수 있는 '서울학생 체력회복 힘힘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저체력 학생에게 운동처방을 내리고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여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건강더하기-생활습관질환 진단검사를 활용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교육도 진행한다. 그 밖에도 신체활동 중심의 체육수업과 하루 60분 신체활동 실천 등을 해오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건강드림학교를 운영 중이다. 단위 학교별로 건강드림정책 추진팀을 꾸려 맞춤형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체육활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영양·식생활 교육,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지역 병·의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남교육청은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한다. 체력인증센터의 건강체력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경북교육청**은 공동으로 앱(App)을 개발하여 체육수업과 건강체력교실, 그리고 가정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누적·관리한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신체활동이나 학생의 체력수준, 학교급 및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구교육청**에서는 교내 순환운동 코스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충북교육청**에서는 줄넘기, 건강달리기, 계단운동 등 학생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부산교육청**은 건강체력반, 웨이트트레이닝반, 스피닝 교실, 필라테스(여학생 특화) 등 학생의 체력과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학교체육을 통해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천·전북교육청**에서는 가상체험(VR)체육실을 활용하여 체육수업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울산교육청**에서는 체육활동과 건강체력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제고를 위한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방학 중 집중 프로그램을, **제주교육청**은 방과 후 자전거 타기(제주) 등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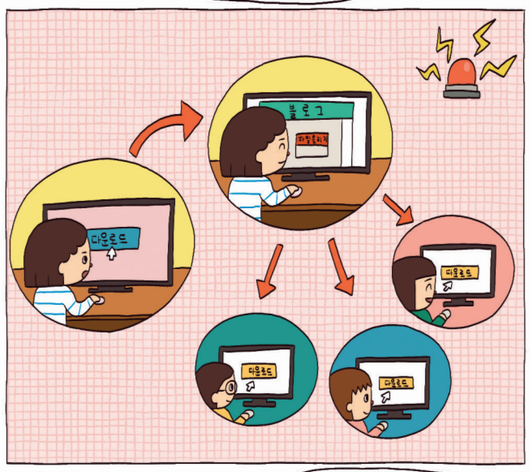
모든 학생이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프로그램 확산

교육부는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건강체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모든 학생이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강체력교실 등 프로그램과 함께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대면·비대면으로 개최하여 신체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체육은 건강한 삶, 즐거운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모든 학생이 학교체육활동을 통해 얻은 건강한 체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기관 폰트 이용하기

글_편집실
그림_이정화



EDUCATION NEWS

vol.480
JULY

NEWS 01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 전략 발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교과별 성취수준은 모든 교과에서 전년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국어의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64.3%로 전년 대비 5.5%p 감소했다. 성별 성취수준은 중·고등학교 모두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성취수준 차이는 중학교 모든 교과와 고등학교 수학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에서 대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도 평가와 병행하여 설문으로 조사한 학교생활 행복도(심리 적응도, 교육환경 만족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상황 이후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설문을 통해 조사한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도 전년 대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중학교 수학의 정의적 특성 '높음'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성취도 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안)

전북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안)

NEWS 02 전북대, 창원대…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된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를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지역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1, 2차 공모를 통해 5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경북대, 전남대)을 선정했으며, 올해 신규로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전북대는 사업비 1,110억 원을 투입해 문화콘텐츠, ICT 바이오 융복합 산업단지를, 창원대는 504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제조, 탄소중립, 지능형방위·항공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NEWS 03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 운영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제 발굴과 점검·관리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 6월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은 교육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 기업 인사담당자 등 기업계 전문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연구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방안 수립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반도체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및 전망 결과'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는 '반도체 산업 동향 및 반도체 기업계 요구사항'을 발표·논의했다.
교육부는 대학, 산업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한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을 활용하여 7월 중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EWS 04 사립유치원 학교급식 대상 확대 추진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교육부 소관 법령(「학교급식법」, 「특수교육법」,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 △재난 발생 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 배송 및 상품권·교환권 지급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외에도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추가해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했다. 「교육시설법」 개정 후속 조치로는 소방시설 실태조사,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전기획,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범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NEWS 05 사립대학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
우선,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도 확대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 규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교지 위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가능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등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본재산 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신고) 절차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배익천
아동문학가

동시동화나무의 숲 가꾸는 동화작가

문학의 힘은 곧 치유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아동문학이라는 장르에서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산수국과 때죽나무, 편백과 동백 등 자연을 잉태한 숲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숲을 일러 치유의 공간이라 칭한다. 경남 고성에 있는 무량산 자락에 가면, 이러한 치유의 공간과 만날 수 있다. (사)동시동화나무의숲이다. 지난 50여 년을 아동문학가로 살아온 배익천 동화작가가 2004년부터 문우들과 더불어 가꾸어가는 '아동문학인의 숲'이다. 2010년에는 '열린아동문학관'도 새로 열었다. '아동문학의 힘'은 가능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 마음이 곧 '자연'이라고 말하는 배익천 동화작가를 만났다.

글_ 편집실

숲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 6월. 해마다 6월 첫째 주말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아동문학가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경남 고성군 대가면에 자리한, (사)동시동화나무의숲(이하 동동숲)이다. 이날엔 아동문학전문지 계간 ≪열린아동문학≫에서 동시와 동화 부문을 대상으로 '열린아동문학상'을 시상한다. 열두 번째인 올해, 동시 부문은 전병호 시인, 동화 부문은 정영혜 작가가 각각 수상했다. 11명의 아동문학인 편집위원과 함께 이 시상을 주관하는 이가 ≪열린아동문학≫ 편집인 및 편집주간을 맡은 배익천(73) 동화작가다.

동동숲은 무량산 자락에 8만5,950㎡로 조성되었다. 2004년 배 작가의 오랜 지우인 홍종관 발행인과 의기투합하면서다. 전국의 동시·동화작가들에게 자신의 이름표가 달린 나무 한 그루씩을 선물하자는 프로젝트를 계획한 것. 진달래길, 글샘오솔길 등 다채롭게 명명된 동동숲의 조붓한 산길에는 현재 232그루의 아동문학인 나무가 쑥쑥 자라고 있다. 편백과 동백, 맥문동이 수놓을 약 1.5㎞의 산책로 곁에는 3,300㎡의 수국원이 보랏빛 자태를 한창 뽐내는 중이다. 열린아동문학관 앞의 보리수나무에서는 빨간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간다. 또 문학관 앞 입구에는 아동문학인들이 집필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정향실'이 운치 있는 모습으로 들어서 있다.

아동문학인들의 천년을 꿈꾸는 숲, 동동숲에서 지난 6월 9일 배익천 작가와 만나 아동문학가의 삶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배익천 작가와의 일문일답.

Q. 197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동화 부문 <달무리>라는 작품으로 등단하셨어요. 문학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아동문학, 그중에서도 동화를 쓰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문예 담당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시를 썼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북대학교 신문사가 주최한 전국 고교생 문예 현상모집에서는 수필 <겨울 아이들>을 썼었고요. 그때 천이두·이보영 교수님 추천으로 최고상을 받았지요. 이후 교육대학에 입학하면서 아동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당시 두 분 교수님으로부터 제 글이 아이들의 심리를 잘 묘사했다는 칭찬을 듣곤 했어요. 저의 생애 첫 동화 부문 당선작은 대학교 2학년 때, 대학신문사에 응모한 <노래하는 병>이었지요.

50여 년간 아동문학가의 길을 걸어온 배익천 작가는 항상 원고지에 글을 써오고 있다.

Q. 지금까지 단행본으로 40여 권의 책을 발간하셨어요. 작가님의 '동화문학' 세계에 대해 들려주세요.

동화는 씨앗을 심어주는 문학이지요. 요즘은 어린이가 읽는 모든 이야기글을 동화라고 하지만 저는 불만이에요. 어린이들 일상의 이야기를 쓴 것은 생활동화, 소년소설입니다. '동화'는 다분히 판타지 요소가 있으면서 여운이 있는 글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동화는 읽은 글이 마음 속에 안개처럼, 는개(안개보다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 조금더 가는비)처럼 스며들어 그 후의 일상에서 새롭게 움트는 씨앗입니다. 예컨대 책 속의 주인공 마음이, 대사 하나가 독자의 일상 어디쯤에서 되살아나 악을 물리치거나, 남을 배려하거나, 정의로워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금방 재미있게 읽는 작품보다는 감동적이거나 다시 읽고 싶은, 언젠가 움틀 수 있는 씨앗 하나를 묻어두는 동화를 즐겨 써 왔고, 앞으로도 쓰려고 하지요.

Q. '아동문학의 힘'은 무엇인지요?

글의 힘은 '외침'과 '보듬음'이에요. 외침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선동이 될 수 있지만, '보듬음'은 '선한 자연'이지요. '아동문학의 힘'은 가능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곧 '자연'이고요.

저는 숲에 살면서 자연이 곧 교과서이고, 사전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고 있어요. 자연은, 숲은 모든 걸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동문학의 힘은 어린이에게는 앞을 보고 헤쳐 나가는 지혜를, 노인에게는 뒤를 돌아보며 모자랐던 부분을 마무리할 여유를 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믿고 있어요.

Q. 동화작가로서 집필 작업뿐 아니라 《어린이문예》, 《열린아동문학》 등 아동문예지 발간 작업도 꾸준하게 이어오고 계신데, 아동문학가로서 무엇보다 큰 보람과 성취를 느끼시겠어요.

맞아요. 43년, 생의 절반 이상을 책 만들면서 살았어요. 《어린이문예》는 퇴직 후에도 14년간 편집을 맡았다가 지난해 후배 동시인에게 주간 자리를 물려주었어요. 《어린이문예》는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가들에게 고르게 발표의 장을 만들어 준 것이 보람이었지요. 《열린아동문학》은 '가장 나답게' 잡지를 만들어 보는 것이에요. 필진들이 청탁을 받으면 생애 최고의 작품을 써 보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최대한의 대접을 해주는 것이지요. 아동문학가들이 《열린아동문학》에는 꼭 글이 실리길 소망하고 '열린아동문학상'을 반드시 받아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이책이 사라질 때까지 《열린아동문학》이 발간되고, 이 책이 존재함으로써 '동동숲'이 천년을 꿈꾸는 숲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Q. 동화가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노인까지 공유할 수 있는 문학이길 꿈꾼다고도 하셨는데, 꿈이 어느 정도 구현되셨는지요?

최근에 쓴 작품들은 대체로 노인과 죽음을 염두에 둔 글이지요. 저 나름대로는 '노인문학'이란 이름으로요.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린이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바꾸어 말하면, 어린이나 노인은 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요즘, 노인들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한 편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자는 의도도 있고요.

Q. 아동문학가, 동화작가가 되기 위해 학생들은 어떤 역량을 키워가야 할까요? 아동문학가 지망생들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동화작가'는 젊은이들이 당장 뛰어들어야 하는 분야가 아니라 꿈꾸어야 할 분야 같아요. 그 이유는 글재주보다는 삶의 깊이와 인생의 참맛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유명 시인과 소설가가 말년에는 동화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톨스토이가 그랬고, 이청준이 그랬듯이요.

저는 고향이 경북 영양인데요,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낸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곳에서 본 자연이 제 동화의 원천이니까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 심지어 돌이나 나무막대기 같은 무생물까지도 저마다 삶이 있지요. 그들의 삶과 인간의 삶을 씨줄과 날줄 삼아 엮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동화가 되지요. '호연지기'란 사자성어가 있어요. '천지간에 가득 차 있는 넓고 큰 기운'이라고 풀이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자연 속에 가득 차 있는 넓고 큰 기운이지요. 항상 자연을 가까이하고, 그것의 이치를 깨달으면 깊이 있는 동화를 쓸 수 있지요.

Q. 아동문학가로서 50여 년이신데요, 앞으로 어떤 또 다른 꿈을 꾸고 계시나요?

이제까지 숲에서 강의한 강의료는 대부분 재단에 기부하고, 언젠가 사후에 내 책의 모든 판권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명문화해야겠네요. 단, 《열린아동문학》과 '열린아동문학상'이 계속 발행되고 시상되는 조건으로요. 이제 나이도 70이 넘었습니다. 어린 동백을 심으면서 그 나무가 꽃 피울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고 욕심도 부려봅니다.

앞으로 10년입니다. 그 10년이 제대로 주어진다면, 이 숲을 소재로 한 멋진 단편을 쓰고,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요. 이제까지 쓴 단편 중에서 간추려 크고 작은 책으로 만들어 우리 동동숲에서만 파는 '영원한 책'을 만들어 그 책과 함께 이 숲에서 영원해지고 싶습니다.

TIP BOX	아동문학가로 등단하려면…
	아동문학 작가의 등단은 신문사에서 매년 개최하는 신춘문예 공모를 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간지 외에도 월간지 및 계간 등 각종 문예지에 동화나 동시를 써서 등단, 작가로 활동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아동문학 글을 쓰고, 직접 자비로 책을 펴낸 뒤 작가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아동문학으로 아이들의 예쁜 마음과 만나요

아이들의 생각과 눈높이에 맞춘 아동문학은 어른 독자와 어린이 독자를 동등한 주체로 만나게 하는 힘이 있다. 아이들의 따뜻하고 예쁜 마음, 풍부한 상상력이 담긴 글이 어른들에게 동심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채로운 아동문학을 만나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아동문학관 두 곳을 소개한다.

동시동화나무의숲 열린아동문학관

숲의 치유와 어린이책의 즐거움이 한곳에!

사단법인 동시동화나무의숲(이하 동동숲) 열린아동문학관은 2018년 고성군으로부터 '동동숲 작은 도서관'으로 인가를 받았다. 이곳에서는 매주 일요일, <고성신문>과 함께하는 '책 읽는 문화고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동동숲 '아동문학인의 나무'에 이름을 올린 동시 및 동화작가들이 참여하는 작가와의 만남과 다양한 독서체험 활동이 진행된다. 또 2020년부터는 '고성공룡 이야기책 축제'가 이곳 동동숲 주관으로 열린다.

숲속 옹달샘인 '글샘'을 품고 있는, 동동숲 체험의 백미는 1.5km에 이르는 산책로 걷기다. 산책로 양옆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문학가들의 이름이 새겨진 '이름돌'을 만날 수 있다. 때론 이름돌에 새겨진 작가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해설도 직접 들을 수 있다. 숲길 산책이 끝난 후에는, 언제라도 작은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다. 동동숲 작은도서관 송정욱 관장은 "동동숲은 숲과 문학을 동시에 교육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학습장"이라면서 "예약 후 방문하면 언제라도 무료로 현장 체험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1 동동숲 열린아동문학관 전경
2 문학관 내부
3 '이름돌'이 있는 산책길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4길 279-47
- **체험문의** 010-8101-6368
- **신청방법** (사)동시동화나무의숲 누리집(www.ddfore.com)

권정생 동화나라

"어린이 문학체험 학습장, 동화나라로 오세요"

안동 '권정생 동화나라'는 <강아지 똥>, <몽실 언니>를 쓴 아동문학가 고 권정생(1937~2007) 선생의 삶과 문학이 담긴 곳이다. 폐교된 일직남부초등학교를 문학관으로 리모델링해 2014년 8월 문을 열었다.

문학관은 전체 2층 건물로, 1층에는 권 선생이 남긴 작품과 유언장, 책상, 소반 등 작가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중요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단편 동화 <강아지 똥> 초판본을 비롯해, 선생이 살던 오두막집을 실물 그대로 재현한 공간도 눈길을 끈다. 특히 작가의 책이 설명과 함께 전시되고 있는데, 가난과 전쟁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소녀 이야기 <몽실 언니>, 헌신적인 모성애를 그린 <엄마 까투리> 등 유작 수십 편을 만날 수 있다.

1층 복도에는 작가의 연대기를 담은 사진이 전시돼 있으며, 선생의 작품을 읽어볼 수 있는 도서실과 서점도 만날 수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단체 관람객을 위한 숙박 시설과 강당 등이 있고, 강아지 똥과 엄마 까투리 등 작품 속 주인공을 형상화한 다양한 조형물도 곳곳에 눈에 띈다.

문학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일정 비용을 부담하면 해설사를 동반한 관람이 가능하다. 특히, 작품 배경지를 방문해 보는 문학기행도 주목할 만하다. '몽실문학기행', '한티제문학기행'은 안동 일대 작품 배경지를 소개하고, 장터에서 간고등어 굽기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 야외 작품 조형물
2 1층 전시실 오두막집
3 도서실

사진제공_권정생 동화나라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성남길 119(망호리 819)
- **관람문의** 054-858-0808
- **신청방법** 단체방문·문학기행은 전화예약 필수 / 자유관람(무료)

교육자치와 교육과정의 지역화

글 _ 정광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교육자치는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다

'자치는 오늘날 우리 교육이 처한 시대의 관점이다.' 시대의 관점을 쿤(T.S.Kuhn)은 '패러다임'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패러다임은 햇살과 같은 것이어서 햇살 아래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누구나 받아야만 하고, 그래서 피하려 해도 피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쿤의 이런 설명은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과 생활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준다.

지금까지 우리의 학교 교육이 걸어 온 노정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교육자치는 지금부터 향후 우리가 걸어야 하는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치고 교육자치라는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 교육자치를 희망하고 자치를 지향해 가는 동안에는 내내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의견과 이견이 서로 갈등하고 그 과정에서 숙의하면서 비로소 안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자치를 할 준비가 되었는가?

모든 국가가 주기적으로 현재 자국의 학교 교육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방안을 찾는다. 그리고 그 방식은 각 나라의 전형에 새로운 방식을 접목하는 식이고 이런 점에서 하향식은 상향식으로, 상향식은 하향식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가령 연방제 국가들(영국, 미국 등)은 주 정부 중심의 자치를 통해서 학교 교육의 문법을 만들어 왔고, 그러는 동안 상향식 문화를 잘 정착시켜서 학교 만족도, 구성원의 자율 능력 등 상향식 체제가 가진 효과들을 이미 내고 있다. 오늘날 그들은 상향식에 하향식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자국의 (학교) 교육개혁을 모색 중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이후 빠르게 근현대 학교 교육 체제와 구조를 갖추면서 중앙집권형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학교 교육은 높은 성취 문화, 교육열, 고학력 등 하향식의 성과들을 거뒀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그동안 중앙의 관료주의, 집단주의, 성과주의를 타깃으로 하면서 미뤄 두었던 지역형, 단위 학교·교실 중심, 학생과 교사 중심으로, 즉 상향식 학교 교육 문화, 체질, 분위기, 만족도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제와 체질을 보완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육개혁이나 학교혁신의 방향을 상향식으로 모색 중이다.

이렇듯 '하향식 → 상향식' 혹은 '상향식 → 하향식'으로 체질을 보완하려 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상향식과 하향식이 공존하는(독일이나 핀란드처럼) 새로운 체제 전환에 꾸준히 도전 중이다. 뻔한 말이지만 우리도 기본적으로 하향식·상향식 모두 우리 교육의 장에 존치 시키기 위해 이제 교육자치를 시작해야 한다.

상향식 정책 마련과 하향식 경험 기반

그럼 우리도 교육자치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중앙의 정책 차원의 기반과 현장의 경험 차원의 기반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전자는 교육자치를 하향식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 후자는 상향식으로 견지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 정책적 기반을 보면, 1980년대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사회적으로는 통행금지 등 봉쇄 정책들을 해제하고 학교는 두발 및 교복 자율화 등을 실시했다. 교육과정도 1981년 제4차(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12.31.)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을 설립하여 연구·개발 보급형으로 전환하는 등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을 시작하며 중앙집권 경향을 완화·개방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변곡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을 개정하면서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개념을 명시하고, 교육과정을 좀 더 다양화하고 지역화하는 방향을 지향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자율화추진계획' 아래,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자율권을 발휘하는 데 규제를 가하는 29개의 지침을 폐지하고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6개 조치(연간 수업시수 20% 범위에서 증감 운영 허용,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 집중 이수, 학년군, 교과군 도입 등)를 취했다. 그리고 현재 개정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는 동안 교육과정 재구성 등 현장의 교육과정 실행 양상이 바뀜에 따라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주체성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제4차 이후 교육과정 분권화
- 제6차 전후 교육과정 지역화 및 교육과정 다양화
- 2009 개정 전후 교육과정 자율화 조처
- 2022 개정에 즈음하여 현장, 특히 교사·학생 교육과정 주체성 강화 움직임

이렇게 중앙에서는 하향식으로 상향식의 길을 여는 마중물을 내려보내 왔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대세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둘째, 현장의 경험적 기반이다. 교육자치는 현장, 특히 교사가 지역(Local)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천하는 교육과정 자율화 능력에 의존한다. 학교의 일상적인 교육활동, 문화를 바꾸는 일은 교사 집단에서 자생하는 '운동'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한다. 이런 운동은 기존의 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새로운 교육 문화를 정착하는 형태로 순환한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운동을 적어도 세 번은 경험했다. 1950년대의 '새교육 운동', 1980년대의 '열린교육 운동', 2009년 전후 등장해서 아직도 진행 중인 '혁신학교 운동'이 그것이다. 이 운동을 거치면서 교사 집단은 '교과서 차시 재구성' → '차시 개발' → '단원(유닛, 주제 중심 단원, 프로젝트 등)을 개발하여 실천'하는 양상을 일반화시켰다. 이는 우리의 학교 현장이 이미 교육자치에 필요한 교육과정 자율화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과정 자율화에 필요한 상향식에서의 정책 마련도 하향식에서의 경험적 기반도 어느 정도 갖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중앙도 학교 현장도 이미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향하는 기점을 돌아서 직진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자치의 꽃은 지역에서 자신의 교육과정을 갖는 것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나는 '국가 교육과정에 후속해서 지역에서 자신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우리나라 교육과정 연구 분야에서도 이 분야 연구자와 학자들이 교육과정을 국가 차원에 한정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차원으로 확대 사용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주체의 다양성을 현실화해야 한다. 교육과정 변천에 대한 역사 연구자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강좌나 과목으로서 학교 교과 형성의 역사를 조명해 왔다. 우리도 교과를 국가 차원에서만 개발하고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교과목 개발의 잠재성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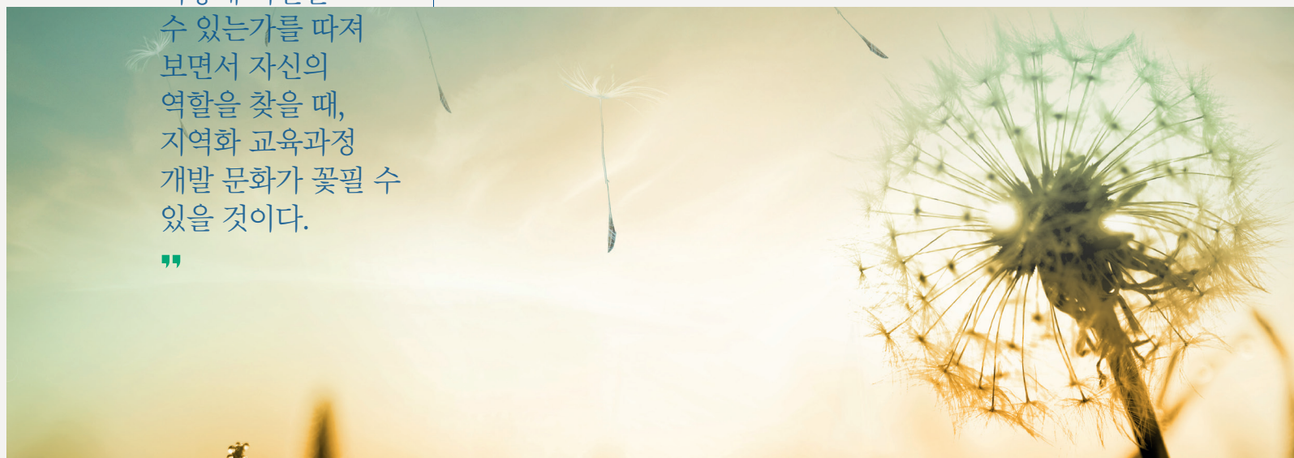
둘째, '국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이 둘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위 학교나 교실에서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국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의 지원을 모두 필요로 한다. 우리는 특히 시도 교육과정에 국가 교육과정과 연속하면서도 차별화된 역할을 세워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그 길을 찾아야 한다.

물론 그동안 우리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자기 지역의 색채를 드러내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다. 교실에서는 주변 지역 친화적인 교육 소재를 선정·조직하여 수업에 사용해 온 경험이 이미 있다. 자기 시도에 있는 것, 가진 것들을 교육 자료로 삼아서 관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교재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이런 여타의 노력이 교실에서는 보조교재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 교육과정'은 총론의 지침 중심이다. 학교나 교실 입장에서 국가 교육과정과 유사하거나 국가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고 있어 옥상옥에 머물러 있다. 시도 교육과정이 독일 베를린처럼 국가 수준의 교과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학교교과 주제를 제시한다든지,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교과별 성취기준 중에서 지역 성취기준을 개발해서 연방교육과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포섭하는 형태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가-시도-학교-교실의 교육과정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국가 교육과정 개발에 후행해서 교실 외부에서 개발한 여러 형태의 지역화 교육과정도 현장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가-교육청-지원청-학교가 서로 교실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따져 보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을 때, 지역화 교육과정 개발 문화가 꽃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교육자치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결국 국가-교육청-지원청-학교가 서로 교실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따져 보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을 때, 지역화 교육과정 개발 문화가 꽃필 수 있을 것이다."



반달 모양 고하도에 조성된 용오름길 해안데크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떠나는 도보 답사 여행

1897년(고종 34년) 목포항이 개항되자, 유달산, 목포진, 목포항 일대에 외국인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 이때 바둑판식 도로와 일본인을 위한 영사관, 가옥, 소학교, 교회, 백화점 등이 들어섰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목포 도심에 근대 시가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2018년 근대 시가지의 핵심 구역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등록문화재 제718)으로 지정됐다. 한 공간에 문화재 21개소가 모여 있는 특이한 경우다.

글 · 사진 _ 김혜영 여행작가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역사문화공간 투어는 목포역에서 출발하면 편하다. 역 관광안내소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안내 지도를 챙겨 '나만의 스탬프 투어'를 계획해 본다.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건축물은 21곳. 주요 문화재로는 '구 목포일본영사관(현 목포근대역사관 제1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현 목포근대역사관 제2관)',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현 목포문화원)',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 '구 공립심상소학교(현 유달초등학교)', '목포진지' 등 6곳이다. 나머지 장소도 6곳 주위에 모여 있다. 지도에 방문지를 표시하며 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안내판에 적힌 자세한 설명을 읽으면 해설사와 동행하는 기분이 든다.

이 근대건축물들은 목포역을 중심으로 동·서·북쪽에 포진해 있다. 유달동과 만호동 일대에 특히 많다. 유달동 유달초등학교에는 1929년 일본인 자녀가 다녔던 심상소학교의 강당이 남아있다. 푸른 지붕을 얹은 큰 건물이어서 유달산, 목포진 등 지대가 높은 곳에 오르면 금세 눈에 띈다. 유달초등학교 앞뒤로는 일본식 가옥과 일제강점기 주요 관공서들이 자리했는데 근대건축물의 외관이 고풍스러워 저절로 발길이 멈춘다.

목포 도심에서 즐기는 근대 역사문화 투어

목포 근대건축물의 대표 격인 '목포근대역사관 제1관'은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1900년 일본영사관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해방 후 목포시청, 목포시립도서관, 목포문화원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제1관 뒤편에 있는 방공호는 태평양전쟁 때 일제가 공중폭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여 만든 인공동굴이다. 일본 순사의 감시를 받으며 굴을 파는 조선인의 처참한 실상을 재현해 놓았다. '목포근대역사관 제2관'은 1920년에 지은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건물이었다. 두 역사관에서 목포 개항, 일제 침략사, 독립운동사 등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만호동 언덕에 자리한 '목포진지'는 조선 세종 때의 수군 기지였다. 목포 개항 후에는 대한제국 관청으로 사용되었다가, 지금은 역사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이곳에 오르면 목포항과 시가지, 유달산이 시원하게 보인다. 목포진지 바로 아래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릴 적 공부하며 꿈을 키웠던 공부방이 남아 있다.

이밖에 개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일본식 가옥 3채, 상가 주택 3채, 구 목포 일본기독교회, 구 목포화신연쇄점, 구 목포부립병원 관사 등도 근처에 자리한다. 옷가게 안에 있는 우물, 여관 간판 뒤 비좁은 골목 안에 숨어 있는 대형 붉은 벽돌창고 등의 근대 유적을 찾아내는 재미에, 다리 아픈 줄 모른다. 목포 외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곳이 군산, 영주, 영덕, 익산 등이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주제로 답사 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1 평화의 소녀상과 목포근대역사관 제1관
2 만호동 언덕에 자리한 목포진지를 공원으로 꾸며 놓았다.
3 목포근대역사관 제2관 1층 내부 전시실 모습
4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유달산 정상 부근을 넘어 고하도스테이션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

목포근대역사관 제1관

주소 전남 목포시 영산로29번길 6
문의 061-242-0340
관람 시간 09:00~18:00(월요일 휴관)
관람료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목포의 심장 유달산 탐방

목포근대역사관 제1관 후문과 연결된 계단을 오르면 유달산(228m)으로 이어진다. 유달산 주차장 앞에 있는 노적봉은 유달산의 바위 봉우리로, 노적가리를 쌓아놓은 것처럼 생겼다. 임진왜란 때 목포 앞바다로 왜적이 침입하자, 이순신 장군이 노적봉을 짚으로 둘러싸 군량미처럼 보이게 해 왜적을 속였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이 일화를 뒷받침하듯 노적봉 맞은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다.

산 전체가 화강암인 유달산은 일등바위, 이등바위, 얼굴바위, 나막신바위 등의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험한 산세와 달리 산속은 산책하기 좋은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정상인 일등바위까지 쉬엄쉬엄 오를 만하다.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편도 한 시간 정도 걸린다.

정상에 오르는 동안 1900년부터 1950년대까지의 목포 역사를 담은 유적들을 만난다. 1909년 목포시민에게 정오를 알리기 위해 화약을 쏘았던 오포대, 1958년 광복 13주년을 기념하여 건립한 달선각, 1932년 10월 목포 개항 35주년을 기념하여 건립한 유선각 등이 그것. 이 명소에서 바라보는 목포 시내와 다도해 풍경이 목포 8경 중 제1경으로 꼽힐 만큼 장관이다.

유달산 정상에 가장 쉽게 오르는 방법은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타는 것이다.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이 케이블카는 목포 시내 북항스테이션을 출발해 유달산 정상부의 유달스테이션을 경유한 뒤, 바다를 건너 고하도에 도착한다. 유달산스테이션에 내려 유달산 정상에 올랐다가 재탑승할 수 있는 점이 이 케이블카만의 장점이다. 정상까지 왕복 30~40분이면 충분하다.

'유달산 아래 섬'이라는 뜻의 고하도(高下島)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전한 뒤 100여 일 동안 수군 재건에 힘쓴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최근 해안절벽에 용오름길 해안데크가 개통되어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환경을 사랑하는 저.탄.구.지 (저탄소로 구하자 지구를!)

글·사진 _ 양지훈 명예기자(안산공업고등학교 교사)

'교실혁명' 코너에서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소개해도 좋고, 수업 분투기도 환영입니다. 초임 교사 시절의 웃지 못할 '망한 수업' 사례도 좋아요. 교단일기처럼 자유로운 수필 형식도 OK! 2,000자 내외 분량의 글을 eduzine21@gmail.com로 보내주세요.

실생활에서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수업은 없을까? 주제 선택 수업이나 교과 수업 시간에 '활동 중심' 환경 수업을 해보자.

양지중학교(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사회 교사와 과학 교사가 함께 12차시 분량의 환경 교육 학습 자료를 만들어 융합 수업으로 환경 수업을 하고 있다. 김세배(사회과) 담당교사는 "환경의 중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 향상을 위해 그림책+영화+달력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을 개발하였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갖게 해주는 다양한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지난 6월 11일 토요일 김세배 교사는 경기도중등사회교육연구회에서 주최한 수업 나눔에서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수업 자료를 나누었다.

수업 나눔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그림책과 영화로 배우는 기후 변화

양지중 환경 수업의 학습 목표는 학생들이 그림책과 영화를 통해 기후, 기후 요소, 기후 변화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며, 기후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다양한 환경 관련 영화 소개 자료와 그림책을 준비한다. 수업 시간에 그림 위주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나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한다. '기후 변화가 우리 삶에서의 경제 활동 측면에서 어떤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의, 식, 주에 영향을 미칠까?' 등을 학생들과 고민해 본다. 그리고 영화를 소개하고 영화 속 환경과 연결하여 미래 사회를 예측해보거나 환경 오염 원인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시점에서 논의한다. 교과의 학습 내용을 그림책과 영화를 연계하여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결과,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1 사회·과학 교사가 함께하는 환경 융합 수업
2 그림책을 통해 배우는 기후 변화

우리나라의 이상 기후 달력 만들기

이어 우리나라의 이상 기후를 달력으로 만드는 활동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먼저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상 기후에 관한 뉴스를 찾아본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상 기후를 특성에 따라 분류한 후, 이상 기후가 일어난 연도를 적고 해당하는 칸에 이상 기후와 피해 상황을 적는다. 학생들은 가뭄, 호우와 태풍, 폭염과 열대야, 폭설, 한파 등 다양한 이상 기후 현상을 살펴보고, 발생 원인과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간다. 이 밖에도 지구를 위한 오늘의 개인적인 실천 방안을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실천한다.

천연 수세미 사용, 재활용품 업사이클링 활동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친환경을 실천한다. 그중 하나는 천연 수세미와 친해지기이다. 수업 시간에는 수세미 열매를 수확해 건조하고 씨앗을 제거하면서 천연 수세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고 천연 수세미가 우리에게 주는 유용성을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천연 수세미를 실제로 사용하고 후기를 적어본다. 학생들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세미의 장점(비용 절약, 건강 증진, 지구 환경 보호 등)도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논의한다.
커피 점토 분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도 주목할만하다. 커피 점토 분말의 가공 과정(커피나무→커피콩→커피→사용 후 분쇄된 원두→건조→입자 크기별 분류→식품 첨가물의 혼합 및 천연 표면 처리→커피 점토 분말 완성)을 교사가 소개하고 커피 찌꺼기(커피박)를 커피 점토 분말로 활용했을 때의 유용성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한다. 커피 점토 분말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보고 후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진다.

3 활동 결과물_ 기후를 주제로 한 여행 포스터

이 밖에도 재활용품 업사이클링 활동을 한다.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디자인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제품을 재탄생시킨다. 수업 시간에는 업사이클링에 대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각자 발표해보고 다양한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디자인한다. 제품명, 사용한 재활용품 종류, 제품 디자인 그리기, 제품 평가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다.

오준석(경북중) 교사는 "환경 수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다양한 수업 방법을 알게 되었다. 환경 교육과 관련된 활동 수업 자료를 나누게 되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수업 나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날 수업 나눔에서는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현장에서 실천 방법을 고민하는 많은 선생님이 모여 다양한 수업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자율활동 시간 환경 주제 활동과 교과 수업 시간 교과와 연계한 환경 수업 등 다양한 환경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FOCUS 01 "세계문화유산 공산성을 메타버스로 만나보세요"

글 _ 김민환 명예기자

충남 공주시의 공산성은 백제 웅진 시대의 문주왕부터 성왕까지 64년간 왕도를 지켜온 왕성이다. 2015년 7월, 백제 역사지구의 다른 유적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다. 2022년 6월,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주시청, 문화재청, 충청남도청, 한국 문화재 안전연구소는 함께 '공산성 달밤 이야기 &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적 교사학습공동체인 '공부하자.com'과 '충남 소프트웨어 ICT 교육연구회'는 이 행사를 메타버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공산성 메타버스를 구축하여 공개하였다.
지난 4월 학생들이 행사를 즐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양 합천초 김규섭 선생님, 공주 석송초 송기진 선생님, 공주 신풍초 한솔 선생님이 공동작업을 시작하였다. 김규섭 선생님은 전체적인 피드백, 행사 관련한 맵과 NPC(플레이어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도우미 캐릭터) 구성, 세부적인 맵 구축, 포스팅 작업을 하였다. 송기진, 한솔 선생님은 공산성을 쌓기 위해 토지 정리, 성벽 작업, 금서루, 공북루 등 전반적인 건축물 구축을 담당하였다. 5월 말까지 맵 개발을 완료하고 행사를 입히는 작업은 6월 초에 완료하였다.
메타버스 제작을 위해 일단 공산성을 사전 답사해서 성벽 외관, 내부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지도를 보며 공산성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Minecraft: Education Edition)에 접속해서 월드 맵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 여러 사람이 동시 접속해서 작업을 하였다. 다음은 공산성의 정문에 해당하는 금서루의 크기를 기준으로 공산성의 전체 크기 비율을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잡고 성벽과 길을 잡아주었다. 성벽을 쌓는 것은 코딩을 통해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작업으로 완성하였다.
'공부하자.com'의 대표 김규섭 선생님은 "메타버스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아이들이 좋아할 도구들을 활용해 공산성 메타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계속해서 교육 현장에 적용해보며 좋은 생각 및 수업 사례를 만들고 싶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올바르게 익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간만의 통찰력과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독자마당

<행복한 교육>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웹진(http://happyedu.moe.go.kr) 의견보내기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채택된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강호우 님

<꿈이 영그는 현장> 파주 마지초등학교 '체험 중심 통일교육으로 공감·존중·평화 감수성 모두 키운다!' 기사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들입니다. 한반도의 내일을 책임질 우리 초등학생들이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으로 공감·존중·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모습이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초등학교에서부터 통일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통일'이라는 나무가 뿌리 내리도록 촉촉하게 토양을 만들고 교육부가 배양해야 합니다.

이춘임 님

6월호 <행복한 교육>에서는 <체험! 진로현장> 칼럼의 '그린 스쿨' 기사를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 기사 속 내용처럼 필(必) 환경 시대에 학교 안팎에서 다채로운 환경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야말로 대한민국의 맑고 깨끗한 내일을 여는 중요한 교육정책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우리 어린 학생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탄소중립 시대의 총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경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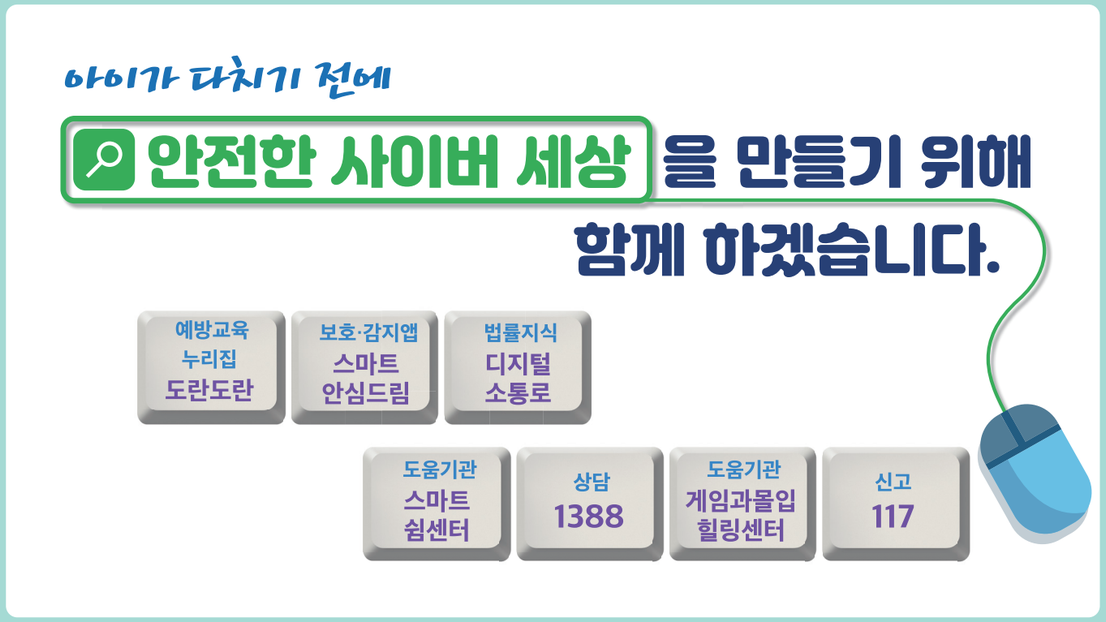
<정책을 말하다> 코너를 통해 교육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생들이 학습과 심리, 정서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요.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습 결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고 심리·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대학생 튜터링 사업」의 목적과 진행 절차,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앞으로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초·중·고교 학생과 대학생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지원하며, 함께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VENT

본문 P 44(이달의 교육뉴스)

교육부는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대학을 지역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 ○○○○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 발표 후, 1, 2차 공모를 통해 5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올해 신규로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위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게임문화재단